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오후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원로 나들이가 17일(화)에 있습니다. 제부도에 갑니다.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22일) 오전 11시 30분 청파초등학교에서 전교인 한마음운동회가 열립니다. 예배는 10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운동회 준비물 : 도시락, 운동화, 모자, 편한 복장, 돛자리 등)

중구용산지방에서 주관하는 웨슬리회심기념집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저녁 7시 광희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19일(목) 오후6시 필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절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전등은 꼭 소등하십시오.

식 당 봉 사 :	안홍숙 최성애 이명희 이증자 이수정a김세진 서원금
5/29,6/5식당봉사 :	정영선 백성혜 한숙경 안경아 김수진a김기성 임창선
설 거 지 봉 사 :	이국노 김민화 이주현 노준우
5/29 설거지봉사 :	이진하 노우중 강미선 유상진
떡 대 접 :	김대근 최종미 (김가빈 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2(통48). 만유의 주재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가리고 있는 황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이 사회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기운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사람들 모두가 청정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신 주님, 진리를 향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서가시며 따라오라,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진리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60:1-2 ..... 인도자

♠ 교 독 문 ..... 83. 빌립보서4장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80(통424). 나의 생명 되신 주 ..... 다함께

♠ 성경봉독 ..... I. 출18:13-27 ..... 천승호 학생  
 II. 막4:26-29 ..... 권미숙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충고의 전제조건** ..... 김재흥 목사

II. **땅에 씨를 뿌려 놓고**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준우 우순덕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배제선 윤미경 윤수진 이한림 김명희 한상경  
 홍순구 안홍숙 홍성식 이유리 무명

### 월정헌금:

김문주 김미순 김현주 박옥순 이봉배 이성범 이인웅 오송경 전영자  
 최윤희 이인범 정재윤 정미경 김주영 이지훈 윤성종 김윤정

### 감사헌금:

홍성식 이유리 박상희 김승식 이동천 민병성 정완수 김재광 최선미  
 김영아 심정아 배근수 김금순 이진영 한양미 하진솔 하진채 전 용  
 김필순 배연선 이재훈 무명8

### 녹색꿈헌금:

이동천 윤여인 장재영 김재영 김범운

### 생일감사헌금:

박옥순

	장 해 숙	백 해 숙	박 영 희	장 해 숙
	노 순 옥	정 경 레	김 미 순	배 부 레
	임 정 자	최 경 미	차 해 심	임 정 자
	문 영 혜	이 명 희	이 명 희	김 진 경
	안 정 숙	진 정 숙	진 정 숙	조 병 주
	박 흥 재	곽 권 희	백 묘 현	문 복 순
	박 호 선	허 정 윤	임 미 심	박 호 선
	이 순 정	김 금 순	오 복 순	이 순 정
	이 형 숙	권 미 숙	이 형 숙	김 재 광
	안 흥 숙	오 현 정	안 흥 숙	박 찬 정
	정 영 선	이 현 숙	송 양 진	김 희 우
	이 영 란	박 미 영	이 현 순	윤 정 화
	박 해 경	조 향 미	조 향 미	박 성 희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교 회	교 회

오독

홍헌호

어느 시에서 나는  
 '화염 속의 내 고향 광주'를  
 '화염 속의 내 고향 광주'로  
 잘못 읽었는데

그렇게 읽길 잘했어

화염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옆에서 죽는 놈 잔하고 불쌍해서  
 내 목숨 들이붓고 피 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화염 아니겠냐?  
 그것이 불타는 엄숙함 아니겠냐?

찬 양 .....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 다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과 우리 마음에 하나  
 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추수의 때를 꿈꾸며 성실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다 함 계 : 아멘. 광야같이 척박한 세상살이에 지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 안  
 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씨앗이 날마다 자라고 있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성실하고 진  
 실한 모습으로 그 씨앗의 싹을 틔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누가의 예수 이야기 / 김재흥 목사 기도 : 곽상준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김진경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박병구 하정석 김정애 정경례 이명희
	헌금위원	김인걸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손님맞이

김복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 이분을 정농회 모임에서 재작년에 처음 뵈었어. ... 그 김복관 선생님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정농회 회장을 맡으신 뒤로 겨울 농한기를 틈타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정농회 회원들 집을 두루 들르시다가 우리 집에도 들르셨어. 스무 해 남짓 유기농으로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지어온 다른 분들에 견주면 우리야 젓비린내 나는 새내기인데도 힘을 북돋워주시는 뜻에서 먼 길을 오신 거야.

1950년대부터 함석헌 선생님과 함께 농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싶어 몇 차례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해 응어리로 남아 있다는 말을 언뜻 다른 분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서 오신 김에 여쭙어보았지. 둘러 말하지 않고 곧바로 들이댔어. 왜 실패하셨냐고. 그랬더니 경제 자급이 안 되더라고 하시네. 공동체를 한다니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 맞아서 함께 이야기하느라 일손 뺏기고, 밥 먹이고 술 먹여 보내다 보니 일할 틈도 없거니와 그나마 애써 거둔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야.

뻔하지. 함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과 함께 공동체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모두 기독교 박애정신으로 마음의 기둥을 세우신 분들인데,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문전박대하실 수 있었겠어? 당장 내일 끼니가 없어도 내색 않고 환대를 했을 터이고, 그렇게 찾아가서 값진 마음의 양식도 얻고 정성스러운 대접도 받고 간 손님들이 돌아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했을 거 아냐. 거기 가니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더라, 마치 잃어버린 고향에 간 느낌이더라 어쩌고저쩌고. 그 말에 솔깃해진 사람들이 또 찾았을 거고.

그 말쑥을 마음에 담아두었지. 그래서 우리 나름으로 손님맞이 원칙을 정했어. 호기심으로 구경삼아 오는 손님 맞지 말자. 그래도 와보겠다고 하는 손님이 있으면 줄잡아 사흘 밤 나흘 낮을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땀을 식히는 틈이나 밤이 되어 일손을 놓을 때 이야기 나누는 조건을 내세워, 그런 까다로운 주문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만 맞아들이자.

이 손님맞이 원칙(?)을 내세우고 지켜온 지 어느덧 세 해째야. 그동안

전화 연락도 없이 멀리서 물어 물어 찾아왔다가 찬물 한 그릇 못 얻어 마시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분들이 어찌 없었겠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고 그저 윤모 교수가 여기서 농사지으면서 실험학교인가 뭔가를 준비한다더라는 소문만 믿고 찾아와 나보고 윤 선생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시치미 뚝 떼고 그 양반 지금 출타 중이라고, 며칠 동안 안 돌아오는데 꼭 만나고 싶거든 여기서 3박 4일 동안 함께 일하자 하며 능청을 떠는 적도 있는데.

그러니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는 풍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이제 내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도 고집스레 이 원칙에 매달리는 까닭이 있어. 어쩌다 내 얼굴을 아는 불한당(不汗黨)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적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건성으로 우리 사는 데를 한 바퀴 휩 둘러보고 가면 그것으로 그만이야. 가보니 그저 그렇더라, 시절이 어느 떼데 원시시대로 돌아가려는지 두레박으로 물을 길고, 흐르는 물에 비누도 없이 빨래하고, 나무 부스러기 주워다가 아궁이에 불 넣고, 뭘 항생제, 호르몬제 들어간 사료 어찌고 하면서 유기농을 한답시고 풀에다 제 똥 버무려 밭에 깔고, 돈 되는 작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보리, 밀, 콩, 수수, 기장 그런 농사만 짓더라, 밭이고 논이고 온통 피와 풀이 가득해서 그야말로 피바다요 저 푸른 초원이더라, 이런 소문만 내고 다닌단 말이야.

땀 흘리고 일하다 간 사람들은 달라. 어지간히 혼뜨검이 나서 정이 뚝 떨어졌을 법한데, 이렇게 고생하고 간 사람들은 자꾸 또 와. 그리고 우리 식구들과도 허물이 없어져서 마치 친동기간처럼 지내.

교육이 뭐야. 한마디로 후손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어 세상에 사람 씨앗 보존하자는 거 아냐. 그러자면 우선 생명체로서 제 앞가림하는 것 가르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여럿이 모여 함께 사는 법을 일러주는 게 교육의 큰 기둥 아닌가 말이야. 요즘은 그런 교육이 없으니 이거 하자는 거지. 교환가치만 유일한 가치로 믿고 잔머리 굴리는 것만 죽어라고 가르치는 이 상품경제 사회에는 미래가 없어.

이거 뭐 이야기가 데데하게 되었는데 째째한 구석이 있으면 한번 놀러 오셔. 한 나흘 사우나 하는 셈치고 땀 좀 흘리자고.